

June kim

저는 콜린파월 초등학교 3학년 김준입니다. 미국에 온지는 9개월이 됐고, 아빠가 미국에서 공부해서 저도 미국에 왔습니다. 처음 미국 학교에 갔을 때는 너무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수업도 어렵고 친구들과 이야기 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공부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P2P 신청해 주고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재원이 형아하고 공부 할 때는 쑥스러웠지만 형아가 미국 놀이동산 이야기, 할로윈 데이 잭슨렌턴 이야기, 땡스기빙데이 때 먹는 칠면조 이야기를 해줘서 기억에 남고 미국도 많이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수업은 학교에서 나눠주는 수학과 영어 프린트 종이, 이슬 영어 프린트를 가지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거의 이해하지 못한 영어들이 형아랑 다시 공부하면서 이해가 되고 특히 모르는 단어가 많았는데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게 됐습니다. 수학도 숫자만 있는 문제는 많이 맞추지만 영어로 쓰인 문제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많이 틀렸는데 형아랑 공부하면서 이해도 되고 정답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그래서 3학년 2번 P2P 하면서 영어 성적이 1점에서 3점으로 오르고, 수학은 4점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성적도 올랐지만 영어 단어를 쉽게 설명해줘서 많이 외운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재원이 형아랑 공부하면서 형아가 칭찬 많이 해 주고 단어 설명이랑 문제 설명 차근차근 잘 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P2P 도 재원이 형아랑 하고 싶었는데 다시 만나서 좋았고 형아가 언제 미국에 왔는지도 말해줬습니다. 다음 P2P 때 다른 형, 누나 만나면 보고 싶을거 같습니다. 미국에 와서 P2P 하면서 영어 단어를 정말 많이 알게 됐습니다. 학교에 다 배우지 못한 문제들, 틀린 문제들, 이해 안 되는 문제들 잘 설명해줘서 좋았고, 왜 틀렸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P2P 하면서 영어성적이 4점까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미국 온지 얼마 안 된 친구들, 영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원이 형아 P2P 마지막날 공부하다가 카운트다운 때문에 마지막 인사 못해서 미안해. 형아 고마워. 형아 또 할거면 내가 아는 동생 소개해 줄게.